

# 한국, 국제특허출원 세계 제7위로 상승

## “국내기업들의 국제특허출원 활발”

**특**허청은 우리나라가 2003년도 특허협력조약(PCT : Patent Cooperation Treaty)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총 2,947건(전년대비 15.5% 증가)으로 전년도 세계8위에서 세계7위로 부상하였다고 밝혔다.

2003년도 PCT 국제특허출원 다출원국가는 미국, 일본, 독일, 영국, 프랑스, 네덜란드, 한국, 스웨덴, 스위스, 캐나다 순으로, 우리나라가 스웨덴을 제치고 2001년 및 2002년 세계8위에서 세계7위로 상승하였다.

특허협력조약(PCT : Patent Cooperation Treaty) : 1970년 6월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에 발효된 국제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조약으로, 출원인이 다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. 2004. 1월 현재 123개국에 가입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1984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. 개도국들의 PCT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단연 선두를 나타내고 있으며, 그 뒤로 중국, 인도, 남아공, 싱가포르, 브라질 등의 순을 보였다. 특히, 개도국 출원인별 랭킹에 있어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267건 및 216건을 출원하여 1, 2위를 차지하였고, LG화학(41건)이 6위, CJ(37건)가 8위, 정보통신연구원(34건)이 9위를 나타냈다. 또한 우리나라 개인출원인인 손영석씨가 총 34건을 출원하여 정보통신연구원과 공동 9위를 차지하여 이채를 보였다.

참고로 선진국을 포함한 전체 국제특허 출원인 랭킹에 있어서는 필립스전자(네덜란드), 지멘스(독일), 마쓰시다(일본), 보슈(독일), 소니(일본), 노키아(핀란드), 3M(미국), 인피니온(독일), 마스프(독일) 및 인텔(미국) 순으로 나타났다.

우리나라의 이러한 국제특허출원 증가는 국내기업들이 보유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다, 한국 특허청이 지난 1999. 12. 1부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(ISA :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) 및 국제예비심사기관(IPEA :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)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

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ISA 및 IPEA : 국제협력조약(Patent Cooperation Treaty)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(ISA: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)이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며, 국제예비심사기관(IPEA :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)이 특허성 유무를 판단한다.

현재 ISA 및 IPEA로는 한국 특허청, 미국 특허청, 유럽 특허청(EPO), 일본 특허청, 중국 특허청, 러시아 특허청, 호주 특허청, 오스트리아 특허청, 스웨덴 특허청, 스페인 특허청, 캐나다 특허청(2002년 지정), 핀란드 특허청(2003년 지정)이 지정되어 있다.

### 개도국들의 PCT 국제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단연 선두

# 2003년 BM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증가

## “심사 대기 기간은 21.5개월로 단축”

**20** 03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BM 특허 출원 건수는 5,117건으로 2002년도에 비해 20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BM특허 출원은 지난 2000년 크게 증가한 이후 부분별한 부실 출원이 줄어들고 벤처기업들의 출원이 감소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였으나,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.

2003년도 BM특허 출원은 쇼핑물 및 거래시스템(973건), 교육 및 의료(567건), 금융서비스(348건), 경매 및 수주(304건), 광고 및 홍보(228건) 부문에 출원이 집중되었다.

또한,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교육, 의료 부문의 출원이 567건으로 전년대비 97.6% 증가하고, 택배서비스 등 물류관련 출원도 227건으로 66.7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03년도 BM특허 등록건수는 9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.8% 증가하였다.

특히, BM 특허 등록건수 중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.1%로 지난 '99년의 74.6%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, BM특허 부문에서

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특허청에서는 BM부문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BM특허 심사관 증원, 외부 선행기술 조사 확대, 심사관들의 자발적인 심사실적 향상 노력 등 다각적인 심사적체 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, '03년 심사착수 건수는 8,465건으로 전년대비 26.7% 증가하였으며 심사대기 기간도 21.5개월로 전년

대비 5개월 단축되었다.

특히, 우선심사 처리 건수도 282건으로 전년대비 52% 증가하여 BM특허의 조기권리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2003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 
BM 특허 출원건수는  
5,117건으로 2002년도에  
비해 20.7% 증가**

※ 우선심사 신청건수 : '00년 232건, '01년 155건, '02년 186건, '03년 282건

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사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, 금융분야 특허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와, 특허청 홈페이지의 “인터넷 특허” 코너 등을 통해 출원인에게 다양한 특허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.

제공 특허청